



2017. 06. 17.

1. 정답 ①

모음조화에 따라 ‘파랳다’는 ‘파래지다’가 되고 ‘퍼렇다’는 ‘퍼레지다’가 되므로 ‘퍼레서’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.

② 또아리 → 파리: ‘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. 또는 그런 모양.’을 뜻하는 말은 ‘파리’이다. ‘또아리’는 ‘갈퀴발의 다른 끝을 모아 휘감아 잡아맨 부분.’을 뜻하는 말이다.

③ 머릿말 → 머리말: ‘머리말[머리말]’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.

④ 잠귀야 → 잠가야: ‘잠그다’는 어간 ‘잠그-’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붙으면 ‘-’가 탈락한다. 그러므로 ‘잠가야’가 올바른 표현이다.

2. 정답 ②

‘말길이 되다’는 ‘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.’를 뜻하는 관용구이다.

3. 정답 ④

쌈: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. 한 쌈은 바늘 스물네 개를 이른다.

제: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. 한 제는 탕약(湯藥) 스무 첩. 또는 그만한 분량으로 지은 환약(丸藥) 따위를 이른다.

거리: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.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오십 개를 이른다.

$$\text{쌈}(24) + \text{제}(20) + \text{거리}(50) = 94$$

4. 정답 ④

시를 지을 때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나 사상을 그대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, 그것을 나타내 주는 어떤 사물, 정황, 혹은 일련의 사건을 빌려 표현해야 한다. 이러한 사물, 정황, 사건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. 이 시에서는 봄비(㉠), 찬바람, 살구꽃(㉡)을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다.

㉠ '봄비'는 화자의 감정을 객관적인 사물에 의탁하여 표현한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쓸쓸함을 자아내는 배경이다.

㉡ '살구꽃'은 봄날 한때 피었다가 금방 지는 꽃으로서, 인생의 짧은 젊음 또는 여인의 짧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. 즉, 화자는 봄비에 하나 둘 떨어지고 있는 살구꽃을 바라보며, 자신의 젊음이 속절없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. '살구꽃'은 이렇게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이며,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사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.

5. 정답 ③

‘언치’는 ‘안장 밑에 까는 방석이나 담요’를 뜻한다. 안장은 없지 않고 언치만 었었다고 했으므로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.

[현대어 풀이]

고개 너머 사는 성 권농 집의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,

누워 있는 소를 발로 차서 일으켜 언치만 었어서 놀러 타고,

아이야, 네 권농 어른 계시냐? 정 좌수 왔다고 여쭙어라.

6. 정답 ①

㉠ 장광설(長廣舌 길 장, 넓을 광, 혀 설):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. 說(말씀 설)

㉡ 유언비어(流言蜚語 흐를 유, 말씀 언, 날 비, 말씀 어):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. 非(아닐 비)

㉢ 변명(辨明 분별할 변, 밝을 명):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. 辯(말씀 변)

7. 정답 ④

④ ‘잠착하다’는 ‘참척하다’의 원말로 ‘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.’를 뜻한다.



2017. 06. 17.

8. 정답 ①

‘선생님께, 드렸다’에서 객체 높임법이 나타나고, 반말체이므로 [주체-], [객체+], [상대-]로 표시해야 한다.

9. 정답 ①

칸트는 미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라는 입장이다. 선택지 중 칸트의 입장과 가장 유사한 견해는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 중 내재적 관점에 속하는 ①이다.

②, ③, ④는 외재적 관점에 속하는 견해이다.

10. 정답 ②

① 파적: 심심함을 잊고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함(=심심풀이).

② 새우잠: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.

안잠: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. 또는 그런 여자.

③ 난장: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어 때리는 매(=몰매).

④ 사관: 양쪽의 팔꿈치와 무릎 관절을 통틀어 이르는 말.

11. 정답 ①

종장에서 ‘천성을 지켜 생긴 대로 하리라’라고 했으므로 이 시의 주제로는 ‘솔성(率性)’이 가장 적절하다.

① 솔성(率性 거느릴 솔, 성품 성): 타고난 성질. 또는 천성을 좇음.

② 선교(善交 착할 선, 사귄 교): 잘 사귀.

③ 준법(遵法 좇을 준, 법 법):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.

④ 독학(篤學 도타울 독, 배울 학): 학문에 충실함.

[현대어 풀이]

내가 하기 좋다고 하여 남한테 싫은 일을 하지 말 것이며,

또 남이 한다고 해도 옳은 일이 아니거든 따라 하지 말라.

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따라서 저마다 생긴 그대로 지내리라.

12. 정답 ③

깨닫다: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.

① 뉘연히 → 버젓이: ‘뉘연히’는 ‘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.’를 뜻하는 부사 ‘버젓이’의 잘못된 표현이다.

② 뒤어내고 → 뒤져내고: ‘뒤어내다’는 ‘살살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.’를 뜻하는 ‘뒤져내다’의 잘못된 표현이다.

④ 허구헌 → 허구한: ‘날,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.’를 뜻하는 말은 ‘허구하다’이다.

13. 정답 ④

일조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난다고 했으므로 ‘하루아침’을 뜻하는 ‘일조(一朝)’를 써야 한다.

① 확집(確執 굳을 확, 집을 집):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.

② 위익(威儀 위엄 위, 거동 익):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.

③ 강도(強度 강할 강, 법 도): 센 정도.

④ 일조(日照 날 일, 비칠 조): 햇볕이 내리쬐.

일조(一朝 한 일, 아침 조): 하루아침.



2017. 06. 17.

14. 정답 ②

- ㉠ '흐드러지다'는 '흐드러진다'가 불가능하므로 형용사이다.
- ㉡ '찍다'는 '찍는다'가 가능하므로 동사이다.
- ㉢ '설레다'는 '설렌다'가 가능하므로 동사이다.
- ㉣ '충만하다'는 '충만한다'가 불가능하므로 형용사이다.
- ㉤ '없다'는 '없는다'가 불가능하므로 형용사이다.

15. 정답 ②

세 번째 문단에서 정상 과학은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,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된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는 ②가 가장 적합하다.

16. 정답 ③

㉠의 '잡다'는 '담보로 맡다'를 뜻하므로 '어림하다'의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.

17. 정답 ②

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.

- ① 마지막 문단의 '총알고동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.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③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④ 첫 번째 문단의 '이곳의 생물들은~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.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18. 정답 ④

글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.

- ① 본론 2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주제문이다.
- ②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글이므로 내수 시장의 기반 강화와는 관련이 없다.
- ③ 본론 1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주제문이다.

19. 정답 ③

- ㉢ ㉠은 할머니를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.
- ㉠ ㉡은 2인칭 대명사이다.
- ㉡ ㉢은 말하는 이를 뜻하므로 ㉤을 아우르지 못한다.
- ㉣ ㉤은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지만, ㉤은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이다.
- ㉦은 듣는 이 또는 듣는 이들을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이다.
- ㉧은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.
- ㉨은 말하는 이가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다.
- ㉩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'자기 자신'을 뜻하는 '나'를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.
- ㉪은 문어체에서, 상대방을 높여 어리는 이인칭 대명사이다.
- ㉫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'자기'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.

20. 정답 ③

㉦과 ㉧에서 동물도 인간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다가 ㉤에서 '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 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.'라고 했으므로 ㉦과 ㉧의 내용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했

2017

태종 국어
지방직 9급 기출문제 해설집-B책형



2017. 06. 17.

다고 할 수 있다.